

趙 南 勳\*  
李 奎 植\*  
洪 性 烈\*  
金 星 姬\*

# 經濟發展에 따른 子女의 効用 및 費用의 變化가 出産에 미치는 影響

- I. 研究目的  
II. 研究方法  
III. 子女의 經濟的 効用 및 費用과 出産力  
IV. 回歸分析에 의한 子女의 効用 및 費用이  
出産에 미치는 影響  
V. 結論 및 政策的 提言

## I. 研究目的

最近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急激한 經濟發展은 社會의 모든 部門에서의 變化를 主導하고 있으며 이러한 變化가 人口學的인 面에 있어서는 出産率의 低下라는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出産率이 低下하게 된 要因으로서는 1962년부터 經濟開發計劃의 一環으로 着手된 家族計劃事業을 包含한 人口調節政策의 成果를 들 수 있겠으나 社會적으로 볼 때 經濟發展에 따른 所得增大, 工業化的 進展, 都市化的 促進, 教育水準의 向上등과 같은 近代化的 展開에 따른 出産行態의 變化를 들 수 있겠다.

이와같이 出産率의 低下를 낳게 한 要因은 바로 家族計劃事業의 推進에 따른 成果와 다른 한편에서는 經濟發展이라는 社會變化에 따른 出産行態의 變化에 結果되었다는 點이다.

이제 本研究가 다루고자 하는 點은 家族計劃事業成果에 따른 出産率의 低下效果가 아니라 經濟發展이라는 社會的 變化에 따른 出産行態의 變化를 分析하고자 하는 것이다. 經濟發展에 따른 出産行態의 變化는 父母의 子女에 대한 價値觀의 變化에 基因되는 것으로 把握된다.

子女에 대한 價値觀에 있어서도 여러 側面에서 分析될 수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父母들이 子女에 대해서 갖는 經濟的 價値라는 側面에서 子女에게서 얻으리라고 期待되는 經濟的 効用과 子女를 養育하므로 投入되는 經濟的 費用에 대한 價値觀이 經濟發展에 따라 變化하므로 나타나는 出産行態의 變化를 分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에 의하면 經濟發展의 進展은 子女에 대한 効用을 減少시키는 反面에 費用認識은 增大시켜 出産의 經濟的 動機를 變化시켜 出産率의 低下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sup>1)</sup>. 한편 「물러」(E. Muller)는 臺灣을 對象으로 研究한 結果, 經濟發展이란 社會變化가 子女에 대한 効用은 減少시키는 反面 費用은 增大시켜 出産率이 低下된다는 「라이벤스타인」의 理論이 成立됨을 立證했다.<sup>2)</sup>

이제 本研究는 우리나라에서 經濟發展에 따라 出産率이 低下된 現象을 分析함에 있어 「라이벤스타인」의 理論을 假說로 設定하여 이를 檢證하고자 하는 것이다.

\* 家族計劃研究院 事業經營研究室 研究員

- 1) Harvey Leibenstein.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3, pp. 161~165.
- 2) Eva Muller. "Economic Motives for Family Limitation," *Population Studies*. Vol. 27, No. 3, Nov. 1972, pp. 383~403.

## II. 研究方法

### 1. 調査對象 및 標本抽出

本分析은 出産行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個別父母의 經濟的 動機의 變化라는 觀點에서 把握하고자 하기 때문에 家口를 調査單位로 한 設問調査 資料를 利用하였다. 調査의 性質上 分析對象은 既婚者가 되며 出産行態에 관한 內容이 큰 比重을 차지하므로 可妊年齡層인 15歲에서 49歲까지의 有配偶婦人만을 面接對象으로 하였다.

本 調査의 標本設計는 層化 2段抽出法을 採擇하였다. 第1段階 抽出單位는 1975年度 人口「센서스」當時 設定한 調査區(enumeration district)의 事後調査區 가운데서 50個 調査區를 3大都市(서울, 釜山, 大邱), 其他都市, 郡部의 3個層으로 나누어서 처음의 人口「센서스」調査區에 대해 1/1,687.4의 平均抽出率로 標本을 抽出했다. 그리고 第2段階 抽出單位는 調査區內의 家口로서 3個層 共히 1/2의 抽出率을 適用하였다.

Table 1. Survey Area and Sampling

Classification	Large cities*	Other cities	Rural	Total
Number of enumeration district of 1975 census	27,976	14,967	41,427	84,370
Number of post enumeration district of 1975 census	88	65	107	260
Number of enumeration district of the economic motivation survey	16	9	25	50
Number of sampled household	600	340	940	1,880
Number of sampled respondents**	494	245	696	1,435
Sampling fraction***	1/3,497.0	1/3,326.0	1/3,314.2	1/3,374.8

\* Large cities include Seoul, Pusan, and Taegu city.

\*\* Currently married women aged 15~49

\*\*\* Sampling fraction=1/1,687.4×1/2=1/3,374.8

따라서 本調査의 總 標本抽出率은 全體의으로 볼 때 <表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3,374.8이 되며 調査家口數는 1,880 家口가 된다. 標本으로 抽出된 1,880 家口에 居住하는 15歲에서 49歲

Table 2. Response Rate by Area

Classification	Large cities	Other cities	Rural	Total
Number of sampled respondents	494	245	696	1,435
Number of surveyed respondents	459	232	664	1,355
Number of incomplete interviews	35	13	32	80
Refusal	10	3	3	16
Moved out	9	5	13	27
Absence	9	3	9	21
Uncertainty of the address	5	—	—	5
Other	2	2	7	11
Response rate(%)	92.9	94.7	95.4	94.4

까지의 年齡群에 屬하는 有配偶婦人은 1,435 名이었다. 한편 本調査는 1976年 9月 23日부터 11月 12日 사이에 걸쳐 訓練된 調査員 27名에 의한 面接調査로 實施하였다. 對象婦人中 應答者數는 1,355 名으로서 94.4「퍼센트」의 應答率을 보였는데 應答結果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 2. 分析 方法

本 研究는 子女로 부터 期待되는 經濟的 效用과 子女養育으로 인하여 投入되는 經濟的 費用에 따라서 나타나는 父母들의 子女에 대한 經濟的 價值觀의 變化가 出產行態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를 分析하기 때문에 研究의 核心的 課題는 子女에 대한 收益—費用分析이 된다. 그러나 本研究에서 使用되는 收益—費用分析은 經濟學에서 普遍的으로 使用하는 貨幣單位로 測定되는 收益—費用分析이 아니라 支拂될 수 있고 獲得할 수 있을 것으로 認知 내지 期待되는 態度的 差異를 中心으로 한 非貨幣的인 收益—費用分析인 것이다. 이와같이 非貨幣的인 心理的 接近法을 使用하는 理由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說明될 수 있겠다. 첫째, 收益이나 費用을 貨幣單位로 換算하기 위해 設定되어야 할 恣意的인 假定을 排除할 수 있다. 즉 子女養育費나 教育費 혹은 子女에게 期待되는 收益을 測定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假定이 없이는 不可能하지만 이를 排除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비록 수많은 假定이 合理的이라 해도 研究對象者의 그 많은 子女들에 대해 한사람 한사람의 收益과 費用을 計算한다는 것도 不可能한 일이다. 셋째, 收益이나 費用이 現在보다 未來에 發生하거나 過去에 發生했기 때문에 이를 現在價值化하기 위한 割引率의 適用이 合理性을 찾기가 힘이 든다. 넷째, 出產行爲自體가 經濟外的인 與件에 많은 影響을 받기 때문에 本研究에 있어서도 普遍的인 收益—費用分析보다 非貨幣的인 心理的 接近法이 보다 有用하다.

以上과 같은 收益—費用分析을 基礎로 하여 本研究의 分析方法是 回歸分析法을 使用하기로 했다.

## Ⅲ. 子女의 經濟的 效用 및 費用과 出產力

우리나라의 傳統的 思考는 子女가 많다는 것은 바로 福이 많다는 것을 指稱하게 되어<sup>3)</sup> 多子女觀이 形成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와서 일어난 急速的인 經濟成長에 힘입은 經濟發展의 進展은 많은 社會的인 變化를 招來케 했으며 이러한 社會的 變化는 子女觀에 있어서도 例外없이 나타나 從來의 多子女觀에서 漸次 少子女觀으로 變化되고 있는 것이다. 즉 1956年 高鳳京에 의한 農村을 對象으로 調査한 研究結果에서 보면 理想子女數가 3男 2女로 大部分이 5名以上の 子女를 願했으나<sup>4)</sup> 1973年 家族計劃研究院에 의한 調査에서 農村만을 살펴 볼 때 理想子女數가 3.4名으로 나타났으며<sup>5)</sup> 本研究을 위한 調査에서는 農村의 理想子女數가 3.1名으로 나타나고 있어 社會變化에 따라 少子女觀이 形成되고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게 한다.

이와같은 少子女觀의 形成은 多子女가 福의 根源이라는 傳統的 價值觀이 變化된데서 基因된다.

3) 多子女가 福의 根源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傳統的 思考에 대한 研究는 1956년에 實施된 高鳳京등의 調査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高鳳京, 李萬甲, 李効再, 李海英. 韓國農村家族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63, p.163.

4) 前掲書, p.39에서 보면 理想子女數가 4名以上이라는 應答이 農村婦人의 86.2% 5名以上은 63.3%에 이르고 있으며 平均을 換算해 보면 4.7名이 된다.

5) 家族計劃研究院. 1973年 全國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査: 綜合報告. 1974. 12, p.36에서 보면 理想子女數가 4名 以上이라는 農村婦人은 37%로 1956年 調査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農村만을 對象으로 한 것을 1956年 調査가 農村만을 對象으로 했기 때문에 統一性을 期하기 위한 意圖였다.

즉 傳統的 社會에서 子女는 家內勞動力의 源泉이 되기 때문에 多子女가 要求되었으며 또한 父母의 老後生活의 保障策으로서 多子女가 要求되었다<sup>6)</sup>. 그위에 家系傳承이 祖上에 대한 義務이며<sup>7)</sup> 이러한 義務를 다함이 孝의 根本이라는 觀念이 支配되어 많은 子女가 要求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醫療水準이 낮은 傳統社會에서의 높은 死亡率은 적은 子女를 가질 경우 後孫이나 自己種族을 喪失할 危險性을 크게 했던 關係로 子女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父母들에게 心理的, 經濟的인 滿足感을 주어 多子女가 福의 根本이라는 觀念이 支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近代社會로의 社會的 變化가 이루어지는 過程에서 農業中心社會가 工業中心社會로 變貌됨에 따라 社會가 要求하는 것은 專門化되고 高級화된 人力이었으며, 한편에서는 國民의 所得水準이 向上되었으며 또한 醫療施設의 改善으로 死亡率이 현저하게 減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工業社會로의 轉換은 家族勞動의 必要性을 減少시켰으며, 所得水準의 向上은 老後保障을 위한 子女의 必要性을 漸減시켰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死亡率의 低下는 적은 子女를 낳아도 子女를 喪失할 危險性을 없었기 때문에 少子女를 가져도 家系傳承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게하여 결국 經濟發展이라는 社會變化는 子女의 効用을 크게 減少시켰다. 또한 專門化되고 資質이 높은 人力의 要求는 個別 家庭으로 보아서 많은 子女를 낳아 제대로 教育을 시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적은 數의 子女를 낳아 충분한 教育을 시키므로 子女들이 社會에 훌륭히 適應되는 것을 願하게 되었고, 所得增大에 따른 效果가 子女養育에 있어 보다 좋은 衣服, 營養攝生, 住居를 提供하기를 願하게 되어 결국 子女에 대한 費用은 增大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傳統的 社會에서는 子女에 대한 効用이 支配되어 多子女觀이 形成되어 왔지만 近代社會로의 轉換은 子女의 効用은 減少하는 반면에 子女에 대한 費用은 增大하여 결국 少子女觀을 形成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社會變化에 따른 子女에 대한 價値觀의 變化가 出産을 制限하게 한 點을 具體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表 3>을 통해서 子女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應答者들 男便의 教育程度에 따라서 살펴 보았다. 여러가지 指標가운데서 教育水準을 擇한 것은 教育이 經濟水準, 地域特性, 近代의 態度등을 綜合적으로 反映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表 3>에서 볼 때 子女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집안의 代를 잇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老後依支가 된다는 것으로

Table 3. Most Important Reason of Having Children by Husband's Education

Reason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Total
Pleasure to watch them grow and develop	6.6	9.9	19.4	30.7	14.0
Children help with family farm or business	0.4	0.3	0.9	—	0.4
To depend on economically after parents retirement	32.8	24.3	24.6	13.8	26.1
To carry on family name/ancestor worship	31.7	28.9	20.2	18.0	26.2
Source of pride	8.7	12.2	9.0	3.7	8.9
Women's duty to family	17.1	14.1	15.0	11.1	15.1
Children makes husband and wife closer	2.5	9.2	10.7	21.7	8.8
Other	0.2	0.3	0.2	0.5	0.3
No answer	—	0.6	—	0.5	0.2
Total (N)	100.0 (515)	100.0 (304)	100.0 (346)	100.0 (189)	100.0 (1354)

Significance level <0.01

6) H. Leibenstein. *Ibid.* p. 161.

7)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民衆書館. 1970, p. 434.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數가 아직도 傳統的 價値觀이 支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教育水準이 높은 層에 갈수록 子女를 기르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子女가 있으면 夫婦愛가 깊어진다고 應答하고 있음을 볼 때 近代化가 子女에 대한 價値觀에 큰 變化를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老後의 生活手段을 <表 4>를 통하여 살펴 볼 때 가장 큰 手段으로 貯蓄을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큰 項目은 子女의 도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敎

Table 4. Most Important Financial Source for Old Age Support by Husband's Education

Financial source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Total
Help from children	37.4	25.0	14.2	6.9	24.4
Income from assets	32.3	23.7	17.2	13.8	23.9
Saving	28.8	49.0	64.0	70.8	48.2
Pension or retirement payment	1.2	2.0	4.4	6.9	3.0
Others	0.3	0.3	0.2	1.6	0.5
Total (N)	100.0 (514)	100.0 (304)	100.0 (344)	100.0 (188)	100.0 (1,350)

Significance level <0.01

育水準別로 볼 때 教育水準이 높은 層에 갈수록 子女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貯蓄으로 老後 生活를 營爲하겠다는 態度가 強해지는 反面, 教育水準이 낮은 層에 갈수록 子女에 依存하겠다는 態度가 強해지고 있어 近代化의 展開가 子女의 効用을 減少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表 5>를 中心으로 子女의 家內勞動力으로서의 効用性을 살펴 보았다. 同表에서 볼 때 農事가 主業인 家庭에서

Table 5. Expect Children to Help with Farm Work or Family Business

Classification	Farm work	Family business	Total
Expect	65.4	21.6	49.3
Do not expect	34.6	77.1	50.2
No answer	—	1.3	0.5
Total (N)	100.0 (411)	100.0 (236)	100.0 (647)

Significance level <0.01

는 子女가 家庭經濟活動에 돕기를 願하는 응답자가 65.4「퍼센트」임에 비해 自營業을 하는 家庭에서는 21.6「퍼센트」로 自營業을 하는 家庭이 훨씬 적으며 經濟發展에 따라 農業의 比重이 漸次 減少되는 事實을 勘案할 때 家內勞動力으로서 子女의 効用이 經濟發展에 따라 減少해 감을 알 수 있다.

한편 費用面에 대한 認識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表 6>에서 多子女의 나쁜 點을 살펴 보면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子女를 기르는 經濟的負擔을 내세우고 있어 經濟發展이 總體의 子女에 대한 費用認識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以上에서 본 바와같이 近代化의 影響을 많이 받은 높은 教育水準에 있는 階層일수록 子女에 대한 經濟的인 効用은 줄어지는 반면에 子女에 대한 費用負擔에 대한 認識은 두터워지고 있는 點은 결국 出産에 있어서 높은 教育水準層일수록 低出産을 할 것으로 期待되며 이러한 結果는 다음 <表 7>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教育水準이 높은 層에 갈수록 現存子女數, 理想子女數 할 것 없이 그

數가 적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多子女라고 생각되는 子女數나 少子女라고 생각되는 子女數가 적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以上에서 結論지을 수 있는 點은 經濟發展이 子女에 대한 效用은 減少시키는데 反해 費用認識은 增大시켜 결국 少子女規範을 形成한다는 「라이펜스타인」의 理論<sup>8)</sup>이 우리나라에서 成立함을 立證한다고 하겠다.

Table 6. Disadvantage of Having Large Number of Children by Husband's Education

Disadvantage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Total
Economic burden is heavy	42.1	44.8	53.1	64.0	48.7
Difficult to provide education	19.3	19.4	18.9	12.7	18.3
Can not provide financial benefits	2.0	2.3	2.9	0.5	2.1
Difficult to care for them	2.6	5.4	5.5	5.3	4.3
Parents are worried about children a lot	18.3	14.0	10.5	10.6	14.2
Children takes away leisure hours	6.3	6.7	3.8	2.6	5.2
Noisy and troublesome	6.1	5.7	3.5	3.7	5.0
Other	—	—	0.6	—	0.2
None	3.3	1.7	1.2	0.4	2.0
Total (N)	100.0 (509)	100.0 (299)	100.0 (344)	100.0 (189)	100.0 (1,341)

Significance level <0.05

Table 7. Number of Living Children and Opinion on the Number of Children by Husband's Education

Husband's education	Number of living children	Ideal number of children	Opinion on a large number of children	Opinion on a small number of children
Primary school	3.8	3.0	4.5	1.6
Middle school	2.8	2.6	4.0	1.3
High school	2.8	2.6	3.8	1.3
College or more	2.4	2.4	3.6	1.1
Mean	3.1	2.7	4.1	1.4

#### IV. 回歸分析에 의한 子女의 效用 및 費用이 出産에 미치는 影響

前章의 敘述의인 分析을 本章에서는 計量的인 方法을 使用하여 子女에 대한 經濟的 效用 및 費用認識의 變化가 出産에 미치는 影響을 살펴 보기로 한다. 本章의 計量分析은 3個部分으로 나누어 說明된다. 첫節에서는 經濟的 動機가 되는 子女에 대한 經濟的 效用과 費用에 關聯되는 設問을 綜合하여 效用과 費用이라는 單一 變數를 만드는 指標設定에 대한 說明이며 둘째節에서는 經

8) 물론 「라이펜스타인」은 出産制限(family limitation)의 動機를 單純히 子女의 經濟的 效用 및 費用에 의해서만 左右된다고 보지는 않고 前提條件으로 出産에 대해 效用과 費用을 單一 要因(the only factor)으로 作用할 경우를 想定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에 있어서도 子女에 대한 心理的 滿足度(psychic satisfaction) 내지 心理的 效用(psychic utility)이 出産에 미치는 影響力은 排除하고 單純히 經濟的 效用과 費用만을 分析對象으로 하였음.

濟的 効用과 費用을 從屬變數로 하여 父母들의 어떠한 特性이 經濟的 効用이나 費用에 큰 作用을 하는지를 分析하기로 하며 세계節에서는 出産을 意味하는 現存子女數나 理想子女數를 從屬變數로 하고 經濟的 動機로서의 子女에 대한 効用과 費用을 獨立變數群에 包含시켜 効用과 費用이 出産에 어느 程度 影響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經濟的 効用 및 費用에 대한 指標設定

出産에 影響을 미치는 父母들의 經濟的 動機는 2個의 相反되는 範疇로 區分된다. 즉 子女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는 經濟的 利益인 期待効用(perceived utility)과 子女를 養育함에 따라 支出될 것으로 여겨지는 經濟的 損失인 認知費用(cost sensitivity)으로 區分된다. 이제 몇가지 設問을 中心으로 効用과 費用을 자기 單一 變數로 挑出하기 위한 過程으로서 그 指標設定을 살펴 보고자 한다.

子女에 대한 期待効用과 費用 變數의 挑出은 本研究의 調査票에 包含된 設問中에서 이에 關聯되는 項目에 대한 應答者의 態度로서 決定하였다.

우선 經濟的 効用變數는 이에 關聯된 12個의 設問에 대한 應答者의 態度에 따라 點數로서 나타 내었다. 12個 問項들 間의 効用의 相對的 重要度を 比較한다는 것은 主觀的 判斷이 介在될 危險이 많아서 12個 問項 共히 同一한 點數를 賦與하여 各問項에 대해 肯定的인 態度를 보이면 1點 否定的이거나 無關心한 態度를 보이면 0點으로 하여 12個의 態度를 應答者 個人別로 總合하여 單一의 點數로 計算한 것이 바로 効用變數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應答者가 12個 設問項 가운데서 2個項에만 肯定的인 態度를 보이면 그는 2點의 効用變數를 가지며 만일 10個項에 肯定的인 態度를 보이면 10點의 効用變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經濟的 効用に 대한 指標設定의 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 經濟的 効用に 관한 設問項目

#### 點數

1. 子女가 집안 일이나 農事일을 돕는 것을 重要視한다.	1
2. 子女에 대한 老後依支를 重要視한다.	1
3. 多子女의 좋은 點은 經濟的 利點이다.	1
4. 少子女의 나쁜 點은 經濟的 利點이 적기 때문이다.	1
5. 過去와 比較해 볼 때 요즘 子女들의 父母에 대한 經濟的 扶養程度가 좋아졌다.	1
6. 子女가 結婚하기 前에 金錢的인 寄與를 하기를 바란다.	1
7. 子女가 結婚한 後에도 金錢的인 寄與를 하기를 바란다.	1
8. 老後에 子女로부터 經濟的  도움을 期待한다.	1
9. 老後의 生活手段을 子女에만 依存한다.	1
10. 子女를 結婚시켜 같이 살기를 원한다.	1
11. 子女의 收入으로 인하여 5年後의 生活이 좋아질 것이다.	1
12. 子女의 經濟的 効用に 대한 夫婦間의 意見交換을 한다.	1

以上の 12가지 項目으로 測定한 應答者의 効用點數는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0點에서 11點 사이에 分布되고 있다.

같은 方法에 의하여 父母들이 子女養育費에 대하여 느끼는 費用認識에 대한 變數는 다음의 9個 問項別 點數를 總合하여 挑出되었다.

經濟的 費用에 관한 設問項目

點數

- |  |   |
|--|---|
| 1. 多子女를 기르는데 나쁜 점은 經濟的 負擔의 增加이다.                   | 1 |
| 2. 少子女가 좋은 點은 經濟的 理由 때문이다.                         | 1 |
| 3. 子女養育費로 인하여 5年後의 生活이 나빠질 것이다.                    | 1 |
| 4. 子女養育을 위해 貯蓄이 重要하다.                              | 1 |
| 5. 子女教育을 위해 貯蓄이 重要하다.                              | 1 |
| 6. 子女의 結婚費 마련을 위하여 貯蓄이 重要하다.                       | 1 |
| 7. 所得이 2倍가 된다면 子女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겠다.                 | 1 |
| 8. 子女를 高等學校以上の 教育을 시키기를 願하며 費用에 대해 具體的으로 생각 하고 있다. | 1 |
| 9. 子女養育費에 대해 夫婦間에 意見交換을 한다.                        | 1 |

Table 8. Score Distribution on Perceived Utility Scale

Score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distribution
0	14	1.0
1	66	4.9
2	96	7.0
3	127	9.4
4	173	12.7
5	217	16.0
6	244	18.0
7	236	17.5
8	113	8.3
9	55	4.1
10	13	1.0
11	1	0.1
12	—	—
Total	1,355	100.0

Mean score: 5.23

Table 9. Score Distribution on Cost Sensitivity Scale

Score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distribution
0	3	0.2
1	12	0.9
2	46	3.4
3	147	10.8
4	270	19.9
5	373	27.6
6	293	21.6
7	153	11.3
8	48	3.5
9	10	0.8
Total	1,355	100.0

Mean score: 5.01

9 가지 問項으로 測定한 應答者의 費用에 대한 態度는 앞의 <表 9>와 같이 0 點에서부터 9 點사이에 分布되고 있다.

위와같이 挑出된 效用과 費用變數 以外에 本研究에서 利用되는 變數들의 대부분이 名稱尺度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變數들을 몇개의 階級으로 區分하여 數值로 置換하였다. 各變數의 階級區分은 可能的 限 正規分布를 이룰 수 있도록 考慮하여 便宜上 4 個의 階級으로 나누었다. 한편 變數處理의 統一性을 期하기 위해 所得과 같이 實數값을 갖는 變數도 名稱尺度에서와 같이 4 階級으로 區分하였다. 그리고 男兒選好度, 消費欲求, 「매스콤」接觸度, 家族計劃知識度의 4 個變數는 單一 設問項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效用이나 費用變數를 挑出한 것과 같은 方法으로 새로운 變數를 挑出하여 새로 挑出된 값을 4 個의 階級으로 區分하여 使用하였다. 이를 參考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 A. 男兒選好度 變數

設 問	點數
1. 자녀에게서 얻는 도움은 아들이 더욱 크다.	1
2. 老後에 같이 살기를 願하는 子女는 아들이다.	1
3. 子女의 좋은 點이 아들이 더욱 많다.	1
4.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아들이 있는 것이 딸보다 좋다.	1

#### B. 消費欲求 變數

1. 앞으로 家族娛樂를 아주 많이 더 갖기를 願한다.	2
앞으로 家族娛樂를 조금더 갖기를 願한다.	1
2. 所得이 2 倍가 되면 消費支出을 더 많이 하겠다.	1
3. 집을 장만하거나 수리를 위해 貯蓄이 重要하다.	1
4. 旅行을 위해 貯蓄이 重要하다.	1
5. 耐久消費財를 購入할 具體的인 計劃이 있다.	2
耐久消費財를 購入할 意思가 있다.	1
6. 向後 집을 改善할 意思가 있다.	1

#### C. 「매스콤」접촉도 變數

1. 新聞을 매일 본다	2
新聞을 이따금 본다	1
2. 「라디오」를 매일 듣는다	2
「라디오」를 이따금 듣는다	1
3. 「텔레비전」을 매일 본다	2
「텔레비전」을 이따금 본다	1

#### D. 家族計劃知識度 變數

1. 「루우프」에 대해 알고 있다.	1
2. 먹는 避妊藥에 대해 알고 있다.	1
3. 「콘돔」에 대해 알고 있다.	1
4. 精管手術에 대해 알고 있다.	1
5. 卵管手術에 대해 알고 있다.	1
6. 避妊注射에 대해 알고 있다.	1
7. 月經週期法에 대해 알고 있다.	1
8. 膾外射精에 대해 알고 있다.	1

## 2. 社會·經濟水準의 差異와 子女에 대한 效用·費用分析

父母들의 社會·經濟水準의 差異가 子女에 대한 效用 및 費用에 미치는 影響을 本節에서는 回歸分析을 통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效用과의 關係를 보기 위해서 前節에서 挑出된 效用變數를 從屬變數로 하고 몇가지 社會經濟的 指標을 獨立變數로 한 回歸分析結果는 <表 10>과 같다. 同表上의  $\beta$  係數는 獨立變數들(explanatory variables)의 相對的인 重要性을 뜻하는 것으로 效用에 대한 各變數의 影響의 強度라 하겠다.  $\beta$  係數의 挑出은 回歸係數  $\times \frac{\text{獨立變數의 標準偏差}}{\text{從屬變數의 標準偏差}}$  의 公式으로 이루어진다. <表 10>에 서 回歸分析은 6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이는 回歸分析에 있어서 獨立變數의 組合에 따라 回歸係

Table 10. Relative Importance of Socio-economic Variables Associated with Perceived Utility of Children

Variable	$\beta$ coefficient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2	3	4	5	6
Husband's education	-.180	-.203	-.077	-.187	-.153	*
Age of wife	*	*	.088	.083	.094	*
Income per couple	-.185	-.190	-.136		-.154	-.129
Number of children	.091	.138	*	.066	.068	*
Boy preference			.360	.374	.363	.357
Husband's employment status	*			-.074		*
Wife's education			-.152			-.155
Age of oldest child	.213					.155
Residence	*					*
Age of husband		.105				*
Wife's employment status			*	*		*
Nuclear vs. large family		*				*
Wife's long lived place		*				*
$R^2$	.228	.220	.340	.311	.326	.347

\* Not significant at .05

數나 決定係數의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는點과 하나의 回歸分析에서 獨立變數를 너무 많이 使用할 경우 統計處理過程에서 「多共線性」(multicollinearity)이나 獨立變數들 間의 「自己相關」(autocorrelation)이 發生할 憂慮性 때문에 任意的으로 獨立變數群을 6가지의 組合으로 使用해 보았던 것이다.

이제 이 6가지의 回歸分析에 있어서 共通의으로 使用한 變數는 男便의 教育水準, 婦人의 年齡 一年間 夫婦所得額, 그리고 現存子女數로 했으며 이 4가지의 獨立變數들을 제외한 나머지 變數들 즉 男兒選好度, 男便의 職業狀態, 婦人의 職業狀態, 男便의 年齡, 첫째 子女의 年齡, 婦人의 教育水準, 都市化程度, 核家族化程度, 婦人의 長期居住地 등은 1~3 個씩 번갈아 가면서 各各의 6가지 回歸分析에 별도로 使用하도록 했던 것이다. 4 個의 獨立變數를 <表 10>에서 처럼 共通의으로 항상 使用한 理由는 이들 4 個 變數가 個人的 差異를 說明하는 가장 代表的 指標가 되기 때문이다.

上記表를 보면 먼저 13 個 獨立變數를 전부 使用한 回歸分析(6)의 決定係數  $R^2$ 의 값이 .347로 나타나고 있어 父母의 社會·經濟的 變化가 子女에 대한 效用의 變化를 34.7퍼센트 說明한다고 하겠다.

獨立變數를 줄여서 사용할 경우와 比較해 보면 먼저 回歸分析(5)에서 男便의 教育水準, 婦人의 年齡, 夫婦의 一年間所得, 現存子女數, 男兒選好度の 5 가지 獨立變數群이 나타내는  $R^2$ 가 .326으로 나타나 13 가지를 全部 使用했던 回歸分析(6)과 比較해서 .021이라는 적은 값의  $R^2$ 값의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 結局 이 5개의 獨立變數가 子女의 經濟的 効用이라는 從屬變數를 32.6「퍼센트」를 說明하며 나머지 8개 變數의 說明力은 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5개 獨立變數群에다 婦人의 教育水準, 婦人의 職業狀態를 追加시킨 回歸分析(3)과를 比較해 보면 前述한 5 가지에다 婦人의 教育이나 職業을 追加시킨 7 가지가 나타내는  $R^2$ 가 .340으로 나타나 回歸分析(5)에서 使用되지 않았던 8 가지 變數중 2 가지를 除한 6 가지 變數의 影響力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제 回歸分析 (3), (5), (6)을 中心으로 說明力이 강한 變數와 낮은 變數를 살펴보면 子女를 갖는데 느끼는 經濟的 効用に 크게 作用하는 變數群으로서는 男便의 教育水準, 婦人의 教育水準, 夫婦의 一年間所得, 現存子女數, 婦人의 年齡, 男便의 年齡, 男兒選好度등으로 볼 수 있으며 子女를 갖는데 느끼는 經濟的 効用に 크게 作用하지 않는 變數群들은 男便의 職業狀態, 都市化程度, 婦人의 職業狀態, 核家族化程度, 婦人의 長期居住地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點은 回歸分析 (1), (2), (4)를 (3), (5), (6)과 比較할 時에 잘 說明되는 것이다. 즉 (1), (2)에서 男兒選好度を 넣지 않고 다른 獨立變數를 使用했을 때  $R^2$ 값이 .220, .228로 낮아지고 있으며 (4)에서 夫婦의 一年間所得 代身 다른 變數들을 使用했을 때 역시  $R^2$ 값이 낮아지고 있는 點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以上에서  $R^2$ 의 變化에 따른 子女의 經濟的 効用に 크게 作用하는 變數는 다음과 같다. 첫째, 所得이나 教育水準과 같이 經濟發展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받는 變數 들제, 男兒選好도와 같이 傳統的인 價値觀 세계, 年齡과 같이 近代化를 받아들이 수 있는 與件 넷제는 現存子女數과 같이 直接的으로 利害關係를 주는 變數들이다.

이제 各 獨立變數들이 子女의 經濟的 効用に 作用하는 影響度를  $\beta$  係數를 中心으로 個別的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beta$  係數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變數는 男兒選好도로 4 가지 경우 모두 .35를 넘는 正의 값을 보이고 있어 男兒選好가 강한 사람일수록 子女에 대한 經濟的 効用을 크게 느낀다고 하겠다. 이러한 事實은 많은 韓國사람들이 經濟的인 効用때문에 男兒를 選好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같은 經濟的인 効用때문에 男兒選好를 하는 態度가 결국은 多子女規範形成의 큰 契機로 作用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男兒選好 다음으로 重要視되는 變數는 夫婦所得과 男便의 教育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夫婦所得의 경우에는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子女에 대한 經濟的 効用이 줄고 있으며 이러한 所得水準과 마찬가지로 男便의 教育水準에 있어서도 教育水準이 높은 層일수록 經濟的 効用을 적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近代化는 子女에 대한 經濟的 動機로서의 子女의 効用을 弱화시켜 少子女規範形成을 促進시킨다고 하겠다. 所得이나 教育水準 다음으로 強하게 作用되는 變數들은 婦人의 年齡이나 男便의 年齡 및 첫째 子女의 年齡으로서 이들 세 가지 變數는 모두 年齡이 높은 層일수록 子女에 대한 經濟的 効用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傳統的인 價値觀에 支配되기 때문에 子女를 父母들의 經濟的 効用의 方便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現存子女數와를 連關지워 볼 때 子女數가 많은 사람일수록 効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點에서 經濟的 効用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結局 多子女觀을 形成하는 契機가 된다고 풀이된다. 그리고 男便의 職業狀態를 살펴 볼 경우 비록 그 強度는 弱하게 나타나지만 職業이 專門化될수록 子女에 대한 經濟的 効用을 적게 느끼고 있다.

以上과 같이 子女를 갖는데 대한 經濟的 効用은 經濟發展에 따라 점차 減少되고 있음이 前章의 敘述의 分析에서 뿐 아니라 本節의 回歸分析結果에서도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 子女를 가지므로 支拂되어야 할 것이라고 느끼는 費用에 대해서도 같은 分析方法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다만 効用分析과의 差異는 獨立變數에 「消費欲求」(consumption aspirations) 變數를 追加했다. 消費欲求를 새로운 變數로 追加시킨 것은 子女에 대한 効用이 耐久消費財에 대한 効用

과 類似하다는 「베커」(G.S. Becker)의 觀點<sup>9)</sup>에 따른 것이며 子女를 消費財와 동일한 次元으로 들 때 消費欲求를 充足하기 위한 費用支出과 子女養育費는 相互 代替的이라는 「이스터린」(R.A. Easterlin)의 理論<sup>10)</sup>이 成立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4個 獨立變數와 子女에 대한 經濟的 費用과의 7회에 걸친 回歸分析 結果는 <表 1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14個 獨立變數가 經濟的 費用을 說明하고 있는 程度는  $R^2 = .122$ 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變數들이 子女에 대한 經濟的 効用에 비해 매우 낮은 說明力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大部分의 父母들이 子女를 기르는데 있어서 費用面에서는 負擔感의 差異가 階層에 따라 크게 나타나지 않은데서 基因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本研究에서 提示하는 14가지 觀點에서 費用負擔感을 살펴 본 結果가 낮은 決定係數( $R^2$ )를 보인다는 點은 14가지 側面에서 父母들의 階層을 區分해

Table 11. Relative Importance of Socio-economic Variables Associated with Sensitivity to Cost of Raising Children

Variable	$\beta$ coefficient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2	3	4	5	6	7
Husband's education	.109	.171	.126	.081	.072	*	.109
Age of wife	*	*	.069	*	*	*	*
Number of children	.184	.179	.183	.194	.207	.182	.144
Income per couple	*	*	*	*	*	*	*
Consumption aspirations	.190	.199	.200				.189
Wife's education		-.080					-.096
Wife's long lived place		*					*
Wife's employment status			*		*		*
Nuclear vs. large family			*				*
Residence				.103	.105		.125
Age of oldest child				*			*
Husband's employment status						.129	*
Age of husband						*	*
Boy preference						*	*
$R^2$	.091	.092	.091	.080	.079	.061	.122

\* Not significant at .05

9) Gary S. Becker.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A Conference of the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p.209~231.

上記 Becker의 子女를 耐久消費財로 보는 見解에 대해서 筆者도 全的인 同感을 賦與하는 것은 아니며 Becker와 反對되는 見解로 代表的인 Judith Blake를 參考로 紹介하도록 한다. Judith Blake, "Are Babies Consumer Durables?," *Population Studies*, Vol.22, No.1, March 1968. pp.5~25. Blake는 同論文에서 Becker의 理論을 4가지 側面에서 反박하고 있다. 첫째는 子女需要와 耐久財에 대한 需要를 같은 概念으로 把握한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즉 耐久財의 需要는 經濟條件에 制約을 받지만 子女需要는 經濟條件에 의해 制約을 받기 힘들다. 둘째는 子女를 "生産"한다는 것과 "消費"한다는 것을 서로 對立的인 概念으로 把握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셋째는 子女의 養育費에 대해 잘못 理解하고 있다. 넷째, 子女 "生産"에 따른 効用分析에서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등으로 批判하면서 子女生産이 生理的이며 社會·心理的인 影響을 많이 받는 點을 너무 經濟的인 側面에 置重하여 把握하고 있다고 했다.

10) Richard A. Easterlin. "Toward a Theory of Fertility,"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dited by Behrman Corsa and Freedma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9. p.134.

보았으나 어떠한 側面에서 把握하여도 子女에 대한 經濟的 負擔感은 비슷하게 느끼는 現象으로 나타난다. 이제 回歸分析(1)에서 男便의 教育程度, 婦人年齡, 現存子女數, 夫婦所得, 消費欲求의 5가지 變數만을 獨立變數로 使用했을 때의  $R^2$ 값이 .091로 나타나며 回歸分析(2)에서는 (1)의 模型에 婦人의 教育水準, 婦人의 長期居住地를 追加했으나  $R^2$ 값이 .092로 큰 變化가 없으며 回歸分析(3)에서는 (2)의 婦人의 教育水準, 婦人의 長期居住地 代身에 婦人職業의 專門化程度, 核家族化程度를 追加했으나  $R^2$ 값이 (1)에서와 같이 .091로 나타나고 있는 點에서 우리가 基本模型으로 設定한 5가지 側面이 가장 큰 差異의 要因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回歸分析(4), (5), (6)에서 消費欲求變數를 빼고 다른 變數를 代身 몇개씩 追加시켜 보았으나  $R^2$ 값이 .080, .079, .061로 떨어지고 있음을 볼 때 基本模型에 利用된 5가지 變數의 觀點에서 나타나는 差異가 子女를 기르는데 經濟的 負擔感의 差異를 보이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라 하겠다.

이제  $\beta$ 係數를 中心으로 說明해 보면 가장 影響力이 큰 變數는 消費欲求로 나타나고 있어 消費欲求가 강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子女가 經濟的인 負擔感으로 크게 作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子女養育費와 消費欲求가 代替關係에 있다는 「이스터린」의 主張이 立證되고 있어 많은 韓國 사람들이 子女養育에서 오는 費用負擔이 現代的인 消費生活 내지 生活環境의 改善에 대해 沮害의 이라는 點을 認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는 變數는 現存子女數로서 現存子女數가 많은 사람일수록 子女에 대해 經濟的으로 더 큰 負擔感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多子女를 갖는 사람이 많은 數의 子女를 기르다보니 自然히 子女에 대해 經濟的 負擔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서 나타나는 當然한 現象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變數는 男便의 教育水準으로 教育을 많이 받은 階層의 사람일수록 子女에 대한 經濟的 負擔感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事實이다. 教育을 많이 받은 階層일수록 經濟的 負擔感을 크게 느끼는 것은 이들 階層에 屬하는 사람일수록 낮은 教育水準의 父母들에 비해 子女를 보다 잘 먹이고 입히고 더 높은 教育을 시키기를 願하는 데서 緣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라이벤스타인」이 論議하는 바와 같이 經濟發展이 社會的 毛細管化를 促進시키며<sup>11)</sup> 近代化의 影響을 보다 많이 받고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에 더욱 쉽게 適應되고 있음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한편 특이한 點은 子女의 經濟的 效用에서는 強力한 影響力을 지녔던 所得水準의 差異가 費用에서는 아무런 影響力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子女養育費에 대한 負擔感에는 자신들이 現在 벌어들이는 所得의 高低보다는 所得을 使用하는 態度로서의 消費欲求나 혹은 現存子女數가 크게 作用하며, 名目上으로 나타나는 所得 그 自體는 支出의 一種인 子女의 經濟的 費用에 대해서는 큰 意味를 賦與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다.<sup>12)</sup>

다음으로 나타나는 變數들은 都市化程度와 男便의 職業狀態로서 都市化된 地域에 居住할수록 子女에 대한 經濟的 負擔感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都市地域으로 갈수록 所得에 비추어서 消費水準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現象이라 할 수 있으며, 職業에 있어서는 專門化된 職業에 從事하는 사람일수록 子女에 대한 經濟的 負擔感을 더욱 크게 느낀다는 것은 前述한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에서와 같이 專門化된 職業을 갖는 사람일수록 社會的 毛細管化에 子女들을 더욱 쉽게 適應시키게끔 많은 費用을 들여서 子女를 養育시키려는 態度로 볼 수 있다.

以上에서 結論지을 수 있는 點은 첫째, 子女에 대한 經濟的 效用과 比較해 볼 때 效用에 있어서는 父母들의 階層間의 差異에 따라 效用에 대한 뚜렷한 差異를 보였으나 費用에 있어서는 그 差

11) H. Leibenstein. *Ibid.* p. 164

12) 이러한 觀點에서 利用되는 所得에 대한 資料는 現在所得(observed income) 보다는 永久所得(permanent income) 혹은 潛在所得(potential income)이 더욱 有效하다는 「이스터린」의 論議가 있음. Richard A. Easterlin, *Ibid.*, pp. 128~130.

異가 相對的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 點이다. 둘째, 消費欲求變數가 費用에 대해 가장 影響力이 큰 變數로 나타나고 있어 經濟發展에 따른 多様な 耐久消費財의 出現과 이에 따른 消費欲求의 增大등은 生活環境의 改善을 追求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다 나은 消費生活에 대한 欲求는 子女出產과 代替關係를 形成시켜 經濟發展이 子女에게 投入되는 費用認識을 크게 하는 契機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消費欲求로 나타나는 經濟發展의 徵表와 함께 教育水準, 都市化 및 職業의 專門化라는 點에서 볼 때 教育水準이 높다거나 都市地域에 居住한다거나 專門화된 職種에 從事한다는 것과 같이 近代化의 影響을 많이 받는 階層에 속할수록 子女에 대한 經濟的 負擔을 보다 많이 느끼고 있어 結局 韓國社會에서 最近에 이룩한 經濟發展은 子女에 대한 費用認識을 增大시켜 子女數를 制限하는 經濟的 動機로 作用된다고 하겠다.

### 3. 子女에 대한 効用 및 費用의 變化가 出產에 미치는 影響

本節에서는 子女에게서 期待되는 經濟的 効用과 子女를 養育함에 따른 費用負擔과 關聯된 變數들을 直接 出產力과 關聯시켜 出產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키로 한다.

出產의 指標는 現存子女數와 理想子女數로 區分하여 두 變數를 각기 다른 從屬變數로 使用하였다. 現存子女數는 過去의 出產行態의 結果를 나타내며 理想子女數는 自身の 環境이나 希望을 考慮하여 갖기를 願하는 子女數로서 現在 내지는 未來에 대한 出產行態를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本研究에서는 過去의 出產行態와 未來의 態度를 동시에 살펴 보기 위하여 現存子女數 및 理想子女數를 모두 分析에 包含하기로 하였다.

이제 現存子女數를 從屬變數로 하여 父母의 社會·經濟的 特性 및 몇가지 心理的 狀態가 나타내는 影響度를 回歸分析結果를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Table 12. Relative Importance of Some Major Determinants of Number of Children

Variable	$\beta$ coefficient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2	3	4	5	6	7
Husband's education	-.188	-.170	-.082		-.088	-.124	-.139
Wife's education				-.137			
Age of wife	.639	.607	.275			.563	
Age of husband				.449	.467	*	.472
Income per couple	*	*	*		*		*
Perceived utility		.109	.078	.050		.061	.070
Sensitivity to cost		.063	.065	.082	.127		.100
Boy preference				.136		.124	.154
Consumption aspirations					-.064		-.060
Residence					-.151		
Husband's employment status						*	
Nuclear vs. large family						*	
Duration of marriage			.389				
Mass media exposure			-.127				
Age at first marriage				-.144	-.150		
F.P. knowledge				*			.058
R <sup>2</sup>	.483	.498	.545	.426	.415	.508	.409

\* Not significant at .05

〈表 12〉는 現存子女數와 各 說明變數와의 關係를 7가지의 回歸分析模型에 의해 나타낸 結果이다.

먼저 回歸分析(1)에서 男便의 教育水準, 婦人의 年齡, 夫婦所得을 獨立變數로 使用했을 때  $R^2$  값이 .483으로 나타나고 있어 現存子女數를 갖는데 이들 3가지 變數가 48.3「퍼센트」의 影響力을 發揮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回歸分析(1)에다 子女에 대한 經濟的 效用과 費用變數를 追加한 回歸分析(2)에서의  $R^2$  값을 보면 .498로  $R^2$  값이 .015만큼 增大되어 現在의 子女數를 갖는데 있어 父母들이 子女에 대해 느끼는 期待效用이나 費用負擔이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前節에서 男便의 教育水準이나 婦人의 年齡 및 夫婦所得變數가 效用과 費用에 상당한 作用을 하고 있음을 勘案한다면 現在의 子女數決定에 이들 效用 및 費用이 미치는 影響力은 回歸分析(1)과 (2)에서의  $R^2$  變化量인 .015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에서 使用된 3가지 基本變數의  $\beta$  값이 (2)에서 크게 떨어질다는 事實로부터 效用 및 費用變數가 子女數決定에 미치는 影響力이 .015보다 크다는 點을 알 수 있어 子女에 대한 效用 및 費用이라는 子女出產에의 經濟的 動機가 現在의 子女數決定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친다고 하겠다.

回歸分析(2)에다 다시 「매스컴」接觸度와 結婚期間을 追加시켜 보면  $R^2$  값이 .545로 .047만큼 높아지고 있다. 回歸分析(3)에서 使用된 變數中 夫婦所得과 子女에 대한 費用負擔을 빼고 다른 變數들로 바꾸어서 分析을 試圖한 回歸分析(6)을 보면  $R^2$  값이 .508로 다시 낮아지고 있어 子女에 대한 費用의 認識度가 現存子女數決定에 상당한 影響力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回歸分析(6)에서 追加된 變數인 男便職業의 專門化 및 核家族化 등은 現存子女數決定에 큰 意味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겠다. 回歸分析(4), (5), (7)에서 基本模型으로 使用했던 (1)의 男便의 教育水準, 婦人年齡, 夫婦所得을 하나씩 빼내고 다른 變數들을 代置해서 分析해 본 結果  $R^2$  값이 (1)에서의 .483보다 낮아지고 있어 이 세가지 基本變數가 갖는 重要性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제  $\beta$  係數에 의한 現存子女數에의 影響度를 살펴보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變數는 婦人의 年齡이며, 그다음으로 男便의 年齡 및 結婚期間이 되고 있다. 이는 당연한 現象으로 男便이나 婦人의 年齡이 높을수록 結婚期間이 그만큼 길 것이며 따라서 子女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留意할만한 變數로는 男便의 教育水準, 婦人의 教育水準, 都市化程度를 나타내는 現居住地, 「매스컴」接觸度, 初婚年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諸變數는 經濟發展에 따른 近代化의 影響을 나타내는 變數로서 모두 負(-)의 값을 보이고 있어 教育水準이 높다거나, 都市地域에 居住한다거나, 初婚年齡이 높다거나, 「매스컴」接觸이 잦은 階層의 사람일수록 子女數가 적음을 뜻한다. 특히 前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階層이 子女에 대해 느끼는 經濟的 效用도 적었던 점을 볼 때 近代化는 子女의 經濟的 效用을 減少시켜 出產을 抑制하는 契機가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傳統的 思考의 表現인 男兒選好度의  $\beta$  係數가 .124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傳統性이 多子女規範을 形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傳統性의 結果로 나타나는 子女에 대한 經濟的 效用과 現存子女數 사이의 關係에서는  $\beta$  係數의 값이 .05를 上廻하고 있어 經濟的 效用이 큰 사람이 多子女觀을 形成한다는 分析結果를 분명히 提示할 수 있다.

한편 子女에 대한 費用負擔은 現存子女數가 많은 사람이 많이 느낄 것이기 때문에 즉 費用의 獨立變數가 되기 보다는 從屬變數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現存子女數와의 關係에서는 說明을 생략하고 다음의 理想子女數와의 分析에서 具體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現存子女數가 過去의 出產行態에 의해 決定되었다면 理想子女數는 現在의 즉 調査當時 出產에 대한 父母들의 態度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本研究가 意圖하는 點이 現在 父母들의 子女數決定에 影響을 주는 要因을 찾는 點에서 現存子女數 보다는 오히려 큰 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다. 즉 現在의 子女數는 現在 子女에 대한 父母들의 價値觀에 의해 決定한 것이 아니라 時差를 두고 일

어나는 現象으로 過去의 態度에 의해 나타난 結果이며 現在의 子女에 대한 價値觀(=態度)은 時差를 두고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現在의 子女에 대한 經濟的 價値나 態度를 중심으로 設問調査된 研究意圖로 볼 때는 現存子女數보다는 理想子女數가 오히려 올바른 出産에 대한 態度가 된다는 點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理想子女數를 從屬變數로 하여 出産行態에 影響을 미치는 個別父母의 社會·經濟的 與件을 回歸分析結果인 <表 13>을 중심으로 分析해 보기로 한다. 分析方法是 現存子女數를 從屬變數로 하여 分析했던 것과 같은 方法으로 16個의 獨立變數를 7個의 回歸分析模型을 중심으로 理想子女數와 獨立變數들間的 關係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現存子女數를 중심으로 한 分析처럼 回歸分析의 基本模型으로 回歸分析(1)과 같이 男便의 教育水準, 婦人의 年齡 및 夫婦 所得이라는 3個의 獨立變數만을 選擇하여 살펴 본 結果  $R^2$ 값이 .10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現存子女數에서 같은 模型의 回歸分析(1)이  $R^2$ 가 .483으로 나타남에 비해 .383「포인트」나 떨어지고

Table 13. Relative Importance of Some Major Determinants of Ideal Number of Children

Variable	$\beta$ coefficient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2	3	4	5	6	7
Husband's education	-.175	-.154	-.082		-.075	-.121	-.136
Wife's education				-.070			
Age of wife	.238	.247	*			.243	
Age of husband				.137	.161	*	.169
Income per couple	*	*	*		*		*
Perceived utility		*	*	*		*	*
Sensitivity to cost		-.115	-.107	-.097	-.083		-.094
Boy preference				.156		.154	.162
Consumption aspirations					*		*
Residence					-.187		
Husband's employment status						-.054	
Nuclear vs. large family						*	
Duration of marriage			.194				
Mass media exposure			-.148				
Age at first marriage				-.097	-.099		
F. P. knowledge				-.065			-.672
$R^2$	.100	.113	.138	.120	.124	.124	.115

\* Not significant at .05

있어 이들 3個 變數의 說明力이 現存子女數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이는 理想子女數를 決定하는 要因이 이러한 個人的인 뚜렷한 特性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社會全體의 環境내지는 社會的 분위기에 크게 左右되어 個人들間에 理想子女數의 偏差가 크지 않은데서 基因되는 結果라 하겠다. 回歸分析(1)의 基本模型에다 子女에 대한 經濟的 効用과 經濟的 費用負擔의 2個 變數를 追加시킨 回歸分析(2)의 決定係數( $R^2$ )의 값이 .113으로 .013「포인트」가 增大되고 있어 理想子女數라는 夫婦의 子女數決定에 이들 經濟的 動機가 影響力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現存子女數에서 基本模型에다 이들 2個 變數를 追加했을 때 決定係數의 變化가 .015이었던 點과 比較해 보면 子女에 대한 經濟的 動機로서의 이들 2個 變數가 子女數決定에 미치는 影響力은 現存子女數에 있어서나 理想子女數에 있어서 비슷한 것이라 하겠다. 回歸分析(2)에다 結婚期間과 「매스컴」接觸度

에 관한 變數를 追加시켜 7個의 獨立變數의 說明力을 보면  $R^2$ 값이 .138로 .025「포인트」가 增加하고 있어 子女數 決定에 傳統的 思想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結婚期間이나 近代性의 影響을 나타내는 「매스콤」接觸度의 說明力이 增大했다고 볼 수 있어 傳統的 價値觀이나 近代의 價値觀 모두 重要한 要因으로 把握될 수 있다. 이는 傳統的 價値觀이 多子女를 指向하려는 影響力을 나타내는 事實과 함께 近代의 價値觀은 少子女를 形成하려는 影響力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分析할 수 있다는 點 때문이다.

回歸分析(4) 以下 (7)에 이르는 몇가지 模型에서 나타나는 決定係數 ( $R^2$ )의 값이 變化하는 現象은 現存子女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說明을 할 수가 있다. 즉 基本模型에서 使用된 男便의 教育水準, 婦人의 年齡 및 夫婦所得의 3가지 變數가 理想子女數를 決定하는 가장 큰 說明要因이 되어 여기에 子女에 대한 效用 및 費用에 관한 認知의 強度가 追加的인 說明力을 賦與받는다는 點이다.

이제  $\beta$ 係數를 중심으로 14個의 獨立變數의 相對的인 重要度を 比較해 보면 現存子女數에서 처럼 理想子女數 決定에 가장 큰 作用을 하는 變數는 年齡變數가 되고 있다. 즉 年齡이 적은 層에서는 理想子女數가 적은 反面에 傳統的 思想의 支配를 많이 받는 年齡이 많은 層에서는 現存子女數가 많았을 뿐 아니라 理想子女數도 많아서 多子女를 願하고 있다는 點이다. 年齡과 같이 結婚期間變數도 거의 비슷한 現象을 보이고 있는 바, 結婚期間이 오래된 夫婦層에서 多子女를 願하는 것도 당연한 現象이다. 年齡이나 結婚期間 다음으로 重要한 影響力을 갖는 要因은 男便의 教育水準으로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이 少子女를 願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變數는 男兒選好度로서 男兒選好에 대한 強度가 큰 傳統的 價値의 支配는 多子女觀을 形成시키는 要因으로서의 重要性을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近代化의 特徵的 事實이 되는 都市化程度를 나타내는 現居住地나 「매스콤」의 接觸度는 傳統的 價値觀인 男兒選好와 거의 비슷한  $\beta$ 값으로 그 重要性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現存子女數에서는 有意한 값으로 나타났던 消費欲求가 理想子女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點이 注目된다.

한편 子女로부터 期待되는 經濟的 效用이나 費用에 대한 認知이 理想子女數決定에 미치는 影響度를 보면 效用은 統計的 意味를 잃고 있으나 費用은 -.083에서 -.115 사이의  $\beta$ 값을 보이고 있어 子女의 養育에 대한 費用負擔이 理想子女數를 줄이게 하는데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現存子女數에 대한 分析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結果로서 現存子女數를 決定하는 데는 效用이 크게 左右했으나 理想子女數에서는 效用이 統計的 意味를 喪失하고는 있다해도 결국 兩分析을 綜合할 때 子女에 대한 效用이 클수록 多子女觀을 形成한다고 하겠다.

또한 費用의 경우 現存子女數에 있어서는 子女數가 많을수록 費用認知이 크게 作用을 할 수 밖에 없지만 理想子女數에 있어서는 子女에 대한 費用認知이 強할수록 낳기를 願하는 子女數는 줄어 들고 있다. 이는 現存子女數에 있어서는 費用이 「被說明變數」(inexplanatory variable)로서 作用하는 側面이 큰 反面에 理想子女數에 있어서는 費用이 「說明變數」(explanatory variable)로 作用하는 側面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上記 兩分析을 통해서 볼 때 經濟發展이라는 社會變化가 子女에 대한 經濟的인 效用 期待度는 減少시키는 反面에 費用認知度는 增大시켜 더욱 적은 數의 子女를 願하게 한다는 事實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本 計量分析에 있어서도 前章의 敘述의 分析에서의와 같이 「라이벤스타인」의 理論이 立證된다고 하겠다.

## V. 結論 및 政策的 提言

### 1. 結 論

經濟發展에 따른 所得이나 教育水準의 向上은 물론 消費欲求 및 「메스콤」接觸度의 增大등과 같은 社會·經濟的 諸現象의 變貌過程에서 父母의 子女에 대한 效用과 費用이라는 經濟的 動機를 變化시켜 少子女觀을 形成하도록 作用했다는 假說로서의 「라이벤스타인」의 理論이 立證되고 있음을 敘述的 分析 및 回歸分析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上記 回歸分析에서 볼 때 教育水準과 年齡이 子女에 대한 效用이나 費用에서 뿐 아니라 出産의 指標인 現存子女數 및 理想子女數에 있어서도 共히 큰 影響力을 갖는 變數로 作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두가지 特性以外에 各 從屬變數에 影響力이 큰 變數들을 보면 子女에 대한 效用에 있어서는 所得과 男兒選好度가, 그리고 子女에 대한 費用에 있어서는 消費欲求가 나타났으며, 現存子女數에 있어서는 「메스콤」接觸度 및 男兒選好도가, 理想子女數에 있어서는 「메스콤」接觸도와 男兒選好도가 影響力이 큰 變數로 자기 나타나 近代의 態度形成이 少子女觀을 形成하는 契機가 됨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들 몇가지 變數가 나타내는 結果를 자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說明을 할 수 있겠다.

年齡變數와 教育水準 變數가 4가지 경우에서 共히 높은  $\beta$ 係數를 보인다는 것은 父母의 年齡이 적을수록 子女에 대한 諸般 經濟的인 效用은 적게 느끼는 反面 子女養育이나 教育과 같은 費用面에서 質的向上을 追求하려는 性向은 크게 나타나 少子女觀을 形成하게 된다고 보겠다. 특히 教育水準은 經濟發展에 따라 向上되는 것으로서 傳統的, 生活樣式 내지 思考方式을 拂拭시키는 直接的 契機가 되어 少子女規範을 形成하는 가장 重要한 與件이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消費欲求가 子女에 대한 費用認識에 影響力이 크게 나타난 點은 經濟發展이 生活의 餘裕나 快適化를 追求하도록 하여 “子女은 비싸게 먹힌다”(children are expensive)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近代化에 逆行되는 傳統的 價値觀의 發露인 男兒選好도가 子女出産에 대한 큰 影響力을 보임은 近代化에도 不拘하고 “子女가 有用하다”(children are valuable)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여 少子女 規範形成에 沮害의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고 보겠다.

### 2. 政策的 提言

以上の 研究結果에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政策的인 活用策을 다음과 같이 提示할 수 있다.

첫째, 子女에 대한 經濟的 效用이 큰 사람일수록 多子女觀을 形成하고 있으며 이런 사람에 있어 男兒選好態度가 強하다는 點에서 男兒選好態度 拂拭을 통한 子女의 效用을 減少시키는 것이 家族計劃事業의 遂行에 先決的인 課題라 하겠다. 이를 위한 政策方向으로는

1) 老後保障制度의 確立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水準으로 보아 短時日內에 이러한 制度를 導入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政策方案일지 모르겠으나 將來의 政策方向이 老後를 子女에게 依存하지 않아도 自立이 可能할 수 있게끔 社會制度的으로 講究되면 男兒選好에 의한 多子女觀이 弱화될 수 있겠다.

2) 老後保障制度和 함께 男兒選好態度를 拂拭하기 위한 政策은 子女에 대한 效用을 減少시키도

특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男女間의 就業機會의 均等化는 물론 賃金隔差의 解消와 같은 社會政策과 함께 既存의 戶主制度나 相續制度 등 法制的인 面의 改善이 早速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子女에 대한 費用認識을 增大시키는 政策이 要望된다. 즉 “子女가 有用하다”는 생각보다 “子女가 비싸다”는 생각을 國民모두가 지닐 수 있게끔 政策的 關心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現在 推進中인 家族計劃 弘報事業의 戰略도 이러한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教育水準의 向上과 家族計劃에 대한 弘報·教育活動의 強化이다. 즉 教育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少子女觀을 形成하고 있는 點에서 다음과 같은 長短期政策이 要望된다.

1) 長期政策으로는 義務教育期間을 現在の 6年에서 9年으로 延長하므로 國民의 全般的인 教育水準을 높여 近代의 態度的 形成이 바람직스럽다. 만약 義務教育期間의 延長이 國家財政上 不可能하다면 1次的으로 두子女家族부터 惠澤을 賦與하는 方案도 考慮될 수 있다.

2) 短期政策으로는 家族計劃에 대한 弘報·教育活動의 強化이다. 특히 「매스콤」接觸도가 빈번한 사람일수록 少子女規範을 形成하고 있는 點을 볼 때 弘報活動에 있어 「매스콤」의 活用이 要望된다. 이는 現在와 같이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의 廣告欄을 통한 啓蒙教育이 아니라 正規「프로그램」속에 人口問題의 深刻性和 家族計劃의 必要性은 물론 子女의 効用은 拂拭시키고 費用認識을 強調하는 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3) 「매스콤」의 活用과는 다른 側面에서 弘報·教育活動이 強調되어야 한다. 現在の 弘報活動이나 「매스콤」을 통한 弘報活動은 그 對象者를 特性에 대하여 區分됨이 없이 同一한 水準에 두고 이루어지는 弱點을 補完하기 위해 低所得者, 低教育層에 적합한 別途의 選別的인 弘報·教育活動이 講究되어야 한다.

4) 教育水準의 向上을 통한 近代의 價値觀의 形成은 短期間에 達成될 수 없는 것이므로 各種教育機關을 통한 人口教育이 實施되어야 한다. 이는 國民學校에서 부터 人口教育을 實施하므로 國民學校만을 履修한 低教育層에서도 人口問題를 認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人口教育은 各級學校는 물론 各機關, 團體, 職場別로 多樣하게 展開되는 새마을教育의 教課課程속에 반드시 人口 및 家族計劃에 대한 課程을 插入시켜야 하며 동시에 子女에 대한 經濟的 効用이 經濟發展에 따라 意味가 없어지는데 反해 費用은 增大된다는 認識을 強調시켜야 하겠다.

네째,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子女에 대한 經濟的 依存도가 減少되고 少子女를 指向한다는 點에서 所得再分配政策을 통한 低所得層의 所得增大策이 提示될 수 있다. 물론 政府는 今年부터 實施된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속에 社會開發政策을 포함시켜 所得의 均等化를 追求하고는 있지만 보다 積極的인 所得再分配政策이 要望된다. 所得再分配政策을 통한 低所得層의 所得增大는 子女를 經濟的 收入源으로 생각하는 態도를 줄여 子女에 대한 効用減少는 물론 그들이 增大된 所得을 통해 消費欲求를 刺戟시켜 少子女觀을 갖는 契機로 作用될 수 있을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1. 高 鳳京, 李 萬甲, 李 海英, 李 効再. 韓國農村家族의 研究.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3.
2. 金 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서울, 1973.
3. 金 疇洙. 家族關係學. 서울, 進明文化社, 1973.
4. 李 効再. 家族과 社會. 서울, 民潮社, 1968.
5. 車 載浩, 鄭 範謨, 李 星珍. 韓國의 男兒尊重思想. 서울,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5.
6. 崔 在錫. 韓國家族研究. 서울, 民衆書館, 1970.

7. Becker, G.S.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A Conference of the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8. Blake, J. "Are Babies Consumer Durables?," *Population Studies*. Vol. 22, No.1, March, 1968.
9. Caldwell, J.C. "Fertility Attitudes in Three Economically Contrasting Rural Regions of Ghan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XI, 1967.
10. Easterlin, R.A. "Toward a Theory of Fertility,"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Behrman Corsa and Freedman (ed.),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9.
11. ——— "On the Relation of Economic Factors to Recent and Projected Fertility Changes," *Demography*, Vol.3, No.1, 1966.
12. Fawcett, J.T., S.Albores & F.S. Arnold. "The Value of Children among Ethnic Groups in Hawaii; Explanatory Measurements." *The Satisfaction and Costs of Children: Theories, Concepts, Methods*. Edited by J.T. Fawcett.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Hawaii, 1972.
13. Freedman, D. S. *Consumption of Modern Goods and Services and Their Relation to Fertility: A Study in Taiwan*. mimeos, 1973.
14. ——— and E. Muller, *Economic Data for Fertility Analysis; World Fertility Survey Occasional Papers*, Edited by K. Williams,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No.11, London, 1974.
15. Heer, D.,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mography*, Vol.3, No.2, 1966.
16. Hoffman, L.W. & M.L.Hoffman.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Edited by J.T. Fawcett. Basic Book. Inc., N.Y., 1973.
17. Johnson, G. E. "Differential Fertility in Europe Countries,"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1960.
18. Leibentsein, H.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3.
19. ———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Decline," *Research Paper Series*. Harvard Center for Population Studies. Cambridge, Massachusetts; 1973.
20. Muller, E. "Economic Motives for Family Limitation" *Population Studies*, Vol. 27, No.3. Nov. 1972.
21. ——— "Economic Cost and Value of Childre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The Satisfaction and Costs of Children; Theories, Concepts, Methods*, East-West Center, Hawaii, 1972.
22. Simon, L. J. "The Effect of Income on Fertility." *Population Studies*. Vol. 23, No.3, Nov., 1969.
23. Spengler, J.J. "Value and Fertility Analysis." *Demography*. Vol. 3, No.1, 1966.

<Abstract>

## Economic Motives and Fertility in Korea

Nam Hoon Cho\*, Kyu Sik Lee\*

Sung Yul Hong\*, Sung Hee Kim\*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Korea has accomplished in the last several years has brought about concomitant social changes, among them, the rapid decline in fertility. Intervening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cline is the change in value concept on the part of the parents toward their children, namely the change in value serves as an intermediate variable linking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cline. Harvey Leibenstein states that the utility of children decrease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ost of child-rearing grows larger in direct propor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result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works to bring about the fertility decline.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above hypothesis by H. Leibenstein.

A total of 1,435 married eligible women in the 15-49 age bracket were selected for the Economic Motivation and Fertility survey and the data collected in the survey were analyzed by mean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have revealed several interesting points: the levels of age and education have an unusually strong influence on the level of fertility including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and the number of ideal children.

Besides the above two variables(age and education), the following additional variables were also found to influence fertility.

- 1) Income per couple and son preference (in relation to the utility of children)
- 2) Consumption aspirations (in relation to the cost of child-rearing)
- 3) Son preference and the degree of exposure to mass communication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 4) Son preference and the degree of exposure to mass communication (in relation to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The result obtained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fact that age and education have, in all of the above four cases, large beta coefficient indicates that, among the young parents, the increase in the parental income lowers the perceived economic utility of children on one hand, while, on the other, an increase in income of the young parents who are more rational in economic terms makes them feel heavier pressure

\* Researcher, Program Management Research Unit, KIFP.

to spend mor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their income. That is, the young parents are much more acutely aware of the enormous cost they have to pay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which in turn creates pressure on the parents to choose a small number of children.

The level of education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 in the educational level effects changes in the traditional way of life, including the inculcation of the small-size family norm.

The reason that consumption aspirations have a direct bearing on the cost of child-rearing is that economic development allows the parents to enjoy a more comfortable life and to have more leisure hours. This, in turn, pressures the parents to have a small number of children, since the smaller the number of children they have, the more leisure time they can enjoy. For the parents, the children are becoming increasingly expensive.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e study nicely fits in with the theory by H. Leibenstein. However, the fact that the son preference still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perceived utility of children indicates that, despite the economic development Korea has achieved in the recent years, the traditional mode of thinking ("children are valuable, but especially son, regardless of the number") is still prevalent in Korea.